

## Contents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홍콩·싱가포르 등 글로벌 환적항, 항만 인프라 지표 상위 차지



### 물류정책·산업동향

1. 아시아 물류·해양 컨퍼런스(ALMC) 이번 달 23일 개최 ... 일대일로,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 물류에 집중
2. 2017년 아시아~서아프리카 무역량 회복
3. K-Line, 자동차 물류 서비스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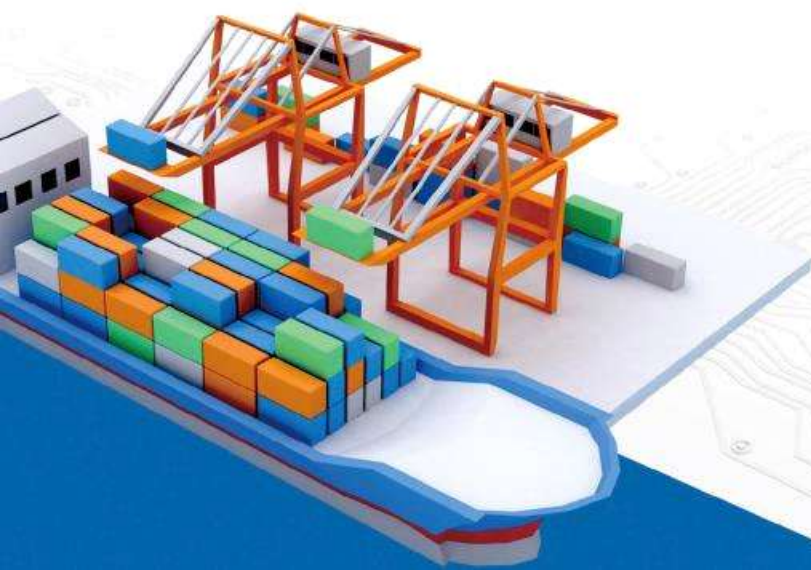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 공지사항

1. 2017 북방물류 국제컨퍼런스

### 명사 스피치

*"Port oper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plex, and we strongly believe port authorities working together around the globe can add significant extra value to the global supply chain. Collaboration in a global network of ports and digitization is the way of the future."*

Jens Meier CEO of Hamburg Port Authority  
(2017. 11. 9. / Supply Chain Management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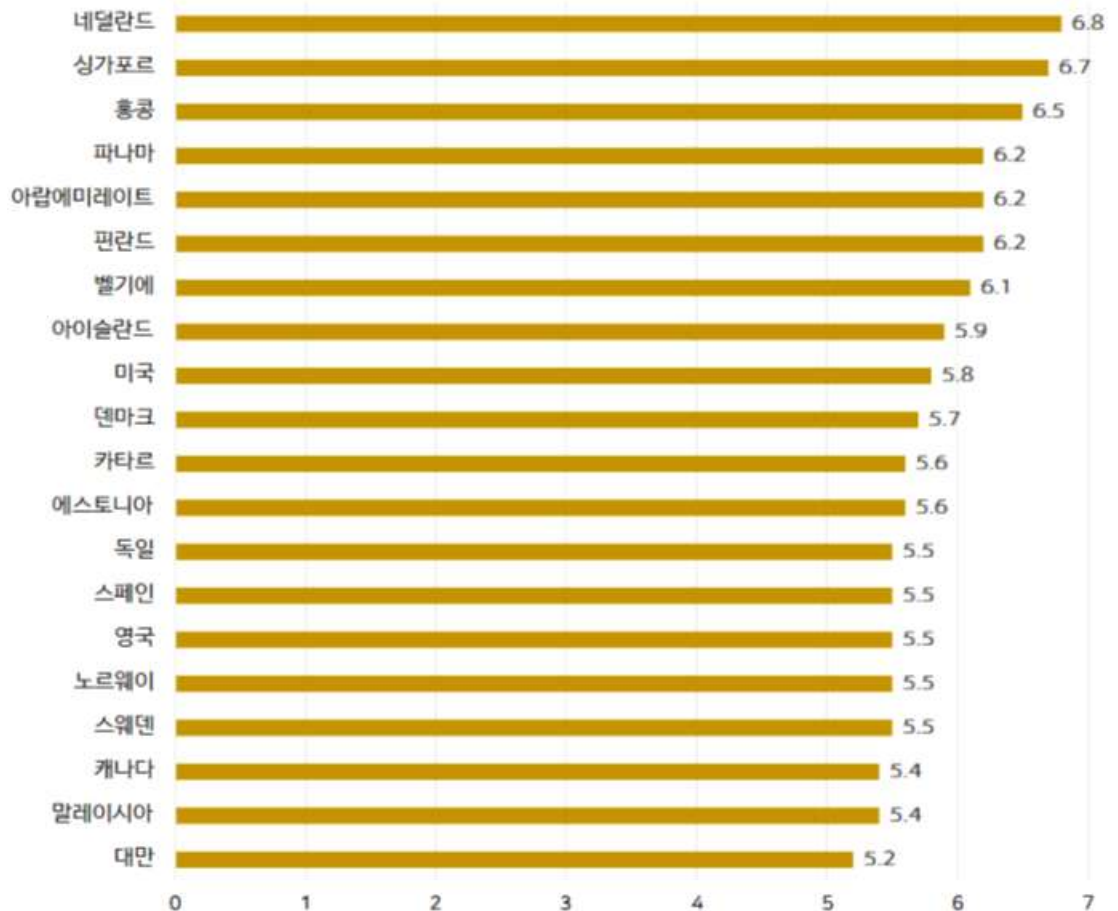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홍콩·싱가포르 등 글로벌 환적항, 항만 인프라 지표 상위 차지

국가별 항만 인프라 지표 순위(2017)



자료 : www.statista.com

- WEF(World Economic Forum)가 산정한 2017년도 국가별 항만 인프라 지표 순위에서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주요 항만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함
  - 항만의 접근성 및 국제 표준 부합수준이 점수 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홍콩,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주요 환적항이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파악됨
- 반면 우리나라 항만은 2016년에 이어 올해도 5.2점에 머물고 있어 글로벌 환적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항만 인프라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 www.statista.com, 2017.11.20.



## 아시아 물류·해양 컨퍼런스(ALMC) 이번 달 23일 개최 ... 일대일로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 물류에 집중

- 2017년 11월 23일~24일 양일간 제7회 아시아 물류·해양 컨퍼런스(Asian Logistics and Maritime Conference, ALMC)가 홍콩 컨벤션 전시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임
  - 올해 아시아 물류·해양 컨퍼런스에서는 해운·물류 분야의 주요 연사 약 70여명과 함께 20개국에서 2,0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
  - 개회식에서는 아롬 톰핏타야파이싯(Arkhom Termpittayapaisith) 태국 교통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임
- 아시아 물류·해양 컨퍼런스는 홍콩 해양 주간(HongKong Maritime Week)의 주요 행사로서 홍콩무역발전국(HKTDC)과 홍콩 특별행정구(HKSAR)가 공동으로 주최함
  - 홍콩 해양 주간은 홍콩 해양·항만위원회, 홍콩 선주협회, 홍콩 해양박물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2017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 될 예정임
- 올해 아시아 물류·해양 컨퍼런스에서는 일대일로, 전자상거래, 스마트 물류 등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임
  - 홍콩무역발전국(HKTDC)의 스티븐 리앙(Stephen Liang) 이사는 일대일로가 비전에서 실행으로 옮기고 물류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글로벌 공급 사슬의 변화를 가속화함에 따라 아시아에서 물류 및 효율적인 해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대폭 창출됐다고 말함
- 컨퍼런스는 총 2개의 본 회의와 함께 주요 이슈를 다루는 포럼들로 구성됨
  - 11월 23일 열릴 첫 번째 본회의 주제는 '일대일로: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성장 엔진'이며 다음 날 열리는 두 번째 본 회의 주제는 '온라인 쇼핑을 위한 새로운 세계 질서'임
  - 그 외 포럼에서는 할랄 물류, 온도조절 화물처리, F&B 디지털 공급 사슬 등을 다룰 예정임
- 이외에도 전시회 및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될 예정임
  - 공급사슬 관리, 물류 및 해운 관련 서비스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12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함
  - 특히 전자상거래 지원 및 응용 기술 존(E-Commerce Support and Tech Applications zone)에서는 인터넷 보안 및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지원과 문서관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술이 선보일 예정임

■ 참고자료 : <http://www.hktdc.com/ncs/almc2017/en/main/index.html>, 2017. 11. 16.



## 2017년 아시아~서아프리카 무역량 회복

- Drewry社의 컨테이너 무역 통계(Container Trade Statistics)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서아프리카의 2017년 3/4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함
  - 2017년 1~9월 동안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해 90만 TEU를 넘어섬
- 아시아~서아프리카 물동량 증가요인으로는 에볼라 위기의 회복과 서아프리카 주요 석유 수출 국가들의 석유 무역량 증가로 분석됨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따르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는 올해 석유 생산량 회복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1.9%로 두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이밖에 다른 아프리카 석유 비생산 국가들의 GDP 증가율은 올해 0.5%에서 내년 1.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IMF는 아프리카 지역의 무역량 상승은 석유 생산량 회복으로 인한 일회성 현상일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무역량 증가에 대한 전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Drewry社 또한 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수요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내년에 물량이 크게 증가할 요인은 거의 없다고 언급함

■ 참고자료 : [www.americanshipper.com](http://www.americanshipper.com), 2017.11.20.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mailto:bjkim17@kmi.re.kr)

## K-Line, 자동차 물류 서비스 개시

- 일본의 대표선사 중 하나인 K-Line은 칠레 등 남미·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자동차 물류 서비스를 시작함
  - K-Line은 칠레에 본사를 둔 물류기업인 Agencias Universales SA(AGUNSA)와 KAR Logistics SA(이하 “KAR”로 표기)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함
  -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자동차 물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산티아고 인근에 위치한 노비시아도(Noviciado)시에 차량 물류 전용 시설을 개장함
- K-Line은 완성차 수송에 관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 승용차와 트럭, 건설기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음
  - 육송과 RORO 터미널, PDI 등의 완성차 물류 서비스를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 호주, 브라질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또한 2016년에도 베트남의 물류기업인 제마데프트 로지스틱스와 합작회사(KGL)를 설립, 베트남 자동차 물류시장에 진출했음
  - 이는 베트남에서 최초로 완성차용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임
- K-Line은 칠레에서 시작하는 자동차 물류 서비스가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 호주, 브라질 및 베트남 등과 함께 기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함
- KAR은 칠레에서 시설 및 장비를 통해 운송, 보관, 차량인도 전 검사(PDI: Pre-delivery Inspection) 뿐만 아니라 차량용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
  - 더불어 수년간의 해상 운송 경험 및 노하우를 활용해 칠레 및 남미 국가의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힘

■ 참고자료 : Americanshipper, K-Line launches auto logistics service in Chile, 2017.11.17.  
(<https://www.americanshipper.com/main/news/k-line-launches-auto-logistics-service-in-chile-69748.aspx?taxonomy=Intermediaries1>).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 공지사항

## &lt; 2017 북방물류 컨퍼런스 개최 &gt;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24일(금)
- 장소 :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로 67)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중앙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초청의 글

안녕하십니까.

귀하를 2017년 11월 23일 부산시에서 개최되는 "2017 북방물류 국제컨퍼런스"에 모시고자 합니다.

물류인프라 개발과 물류산업의 성장은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방지역은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한반도, 몽골의 교통과 물류가 연계되는 지역으로 그 미래가치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러시아, 중국, 몽골의 정부, 기업, 학계 인사를 초청하여 최근 정책의 변화, 지역개발 사업, 기업의 시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북방물류의 현주소와 발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쁘시더라도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내 용
등 록	09:30 - 10:00	참석자 등록 및 안내
개회식 및 기조연설	10:0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li> <li>■ 축 사 :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li> <li>■ 기조연설 : 최근 북방물류 정책의 변화</li> </ul>
오 찬	12:00 - 13:30	Grand Ballroom B / Peony Room
1세션	13:30 - 15:10	■ 주제 : 주요 지역물류 개발계획
휴 식	15:10 - 15:20	Coffee Break
2세션	15:20 - 17:10	■ 주제 : 물류기업의 새로운 물류프로젝트
Round Table	17:10 - 17:50	■ 주제 : 북방물류 시장의 현실과 과제
폐 회	17:50 - 18:00	폐회 및 정리

## 오시는 길



### 지하철

- 2호선 동백역 하차
- 1호선일 경우 서면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 버 스

- 일반버스  
31, 38, 39, 40, 63, 100, 100-1, 115-1, 141, 181 (운촌 하차)
- 급행버스  
1003 (동백섬입구 하차)

### 공항리무진

- 김해공항 ↔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  
: 약 1시간 소요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로 67  
(지번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737)  
전화, 051)749-7000

